

# 녹색운동

통권 294

환경을 생각하는  
첫번째 실천, 환경운동연합  
회원을 권해 주세요

03 2024

인간의 마음은 심리, 행복의 미터를 만들어 가는 녹색의 길  
**(사)당진환경운동연합 2024년 정기 총회**  
2024년 2월 20일(목) 저녁 6시 30분



## 당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지난 2월 20일 당진상공회의소에서 2024년 당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탈석탄 에너지전환'을 기점으로 올해도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선택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2024년 정기총회 개최



석문간척지에 30만 두 규모 축산단지 들어오나



“불산공장 건축 불허가 항소심 당진시 승소 환영”

- ▶ 발행일 2024. 3. 10.
- ▶ 발행인 손창원, 송영주
- ▶ 편집인 유형민
- ▶ 편집위원 팽말숙, 박희선, 조순형, 임수진, 김정진, 박은정
- ▶ 당진시 무수동옛길32 태영빌딩 204호
- ▶ 전 화/ 355-7661
- ▶ 전 송/ 355-0443
- ▶ E-mail/ dangjin@kfem.or.kr
- ▶ http://dj.ekfem.or.kr

3 이달의 시

| 기빠의 비밀 / 이안

4. 지역환경이슈1

| 당진환경운동연합 2024년 정기총회 개최

6. 지역환경이슈2

| 석문간척지에 30만 두 규모 축산단지 들어오나

8. 지역환경이슈3

| “불산공장 건축 불허가 항소심 당진시 승소 환영”

9. 충남환경이슈1

| 충남환경운동연합 2024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10. 충남환경이슈2

| “석탄 발전 노동자 대량 해고 위기, 정부 정의로운 전환 대책 마련하라”

11. 충남환경이슈3

| “한달 만에 또?” 국힘,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발의

12. 지구환경! 관심이슈?

| 생활속 플라스틱·페트병 분리수거 방법 확실히 알아볼까요?

14. 전국환경이슈1

| 공동대표 노진철·강찬수·차수철, 사무총장 신우용

15. 전국환경이슈2

| 11월 오염수 4차 방류, 첫 사이클 완료 앞뒀지만...

16. 전국환경이슈3

| 기후공약 준비됐나요? 시민 60% “내 표심에 영향”

18. 전국환경이슈4

| 非수도권 그린벨트 대대적 해제... 與선거전략 논란

19. 2월 살림살이

20. 2월 활동소식

22. 3월 주요사업 계획

23.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24. 광고





## 당진환경운동연합 2024년 정기총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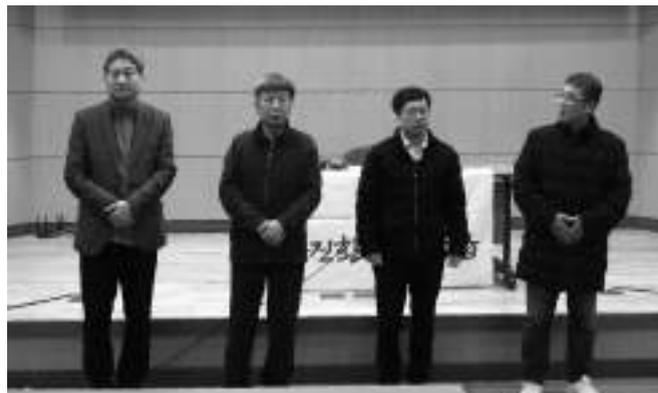
임원 선출 공동의장 손창원·송영주, 감사 이경희



당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에 참석한 회원들



회원 소모임 '난리부르스' 식전 행사로 공연을 하는 모습



임원으로 선출된 공동의장 및 이사



당진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월 20일 당진상공회의소 5층 대회의실에서 70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정기총회를 열어 손창원·송영주 공동의장 등 차기 임원을 선출하고 새해 사업계획과 예산을 의결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식전행사로 2023년 영상 활동보고와 회원 소모임 '난리부르스'의 밴드공연에 이어 감사패 및 우수회원상 수여가 진행됐다.

정기총회 안건으로 △전차 회의록 보고 및 채택의 건 △전년도 감사보고서 채택의 건 △전년도 사업평가(안) 승인의 건 △전년도 결산(안) 승인의 건 △임원 선출 △2024년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2024년 예산(안) 승인의 건 등 7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임원 선출에서는 이사장에 손창원, 이사에 손창원 이사장을 포함 송영주, 황성렬, 유형민, 김정진 총 5명의 이사, 감사에 이경희 감사가 선출됐다. 임원 선출에 이어 손창원 이사장이 당진환경운동연합의 역사와 대외 활동을 위해 총회 참석자 전원의 동의를 구해 손창원, 송영주 2명을 공동의장으로 삼아 활동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총회에서 감사패는 당진신문, 우수회원상은 김광수 회원과 최재혁 회원에게 수여됐다.



팍없는 뽑기에 도전하는 회원

2024년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시민과 함께하는 탈석탄 에너지 전환'을 기조로 석탄화력 조기폐쇄, 제철소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확대, 정의로운 전환, 폐기물 처리시설 대응, 산업단지 현안 대응, 자원순환 활성화, 국회의원 총선 대응, 조직회원 확대사업, 후원 확대사업, 홍보사업등을 주요 사업계획으로 결정하여 활동하기로 했다.

[글 사무국]

## 석문간척지에 30만 두 규모 축산단지 들어오나

충남도, 간척지 활용 스마트 축산복합단지 추진  
7600억 들여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등 조성  
“지역주민 의견 수렴해야…철저한 대응전략 필요”



충청남도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수록된 석문간척지 축산단지 위치.

충남도가 내년부터 석문간척지에 총 30만 두 규모의 스마트 축산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축산농가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우선적으로 수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지난 6일 충청도청에서 ‘간척지를 활용한 스마트 축산복합단지 조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이번 연구용역은 스마트 축산 복합단지

대상지 선정과 방향성 정립, 개발 계획안 작성, 운영 전략 수립 등을 위한 것으로, 지난해 2월부터 전북대·공주대·세민환경이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충남도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일환 전북대 교수는 스마트 축산복합단지의 필요성으로 △방역 등 개별적인 관리 한계 극복 △약취민원 해결 △축산 분야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순환 △순환형 생태계 조성 등을 제시했다. 또한 스마트 축산복합단지 조성 방향으로 △시설 현대화 △가축분뇨·축산악취·종합방역 등 공동 운영을 통한 축사 환경개선 및 수익 안정성 보장 △축산업 탄소저감 등을 제안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충남도가 구상한 스마트 축산복합단지 세부 시설은 △2층형 신형 축산단지 △방역시설 △에너지화 시설 △가축분뇨 처리 시설 △스마트 온실 △웰컴센터 △관리동 및 주거동 △조사료 단지 △방풍림 △주차장 등이 포함돼 있다.

### 악취 저감 및 가축분뇨 에너지화

충남도에서는 신형 축산단지에서 돼지를 키우며 발생한 악취를 저감하는 시설과 가축분뇨를 에너지화 시설로 보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에는 에너지 생산 및 재활용, 퇴·액비 생산 시설을 갖추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밖에도 스마트 온실과 조사료 단지에서는 에너지화 시설에서 공급된 냉난방 에너지와 가축분뇨 퇴액비를 활용해 작물을 재배하고, 조사료 단지 재배 작물을 소 사육 농가에 공급하는 시스템이 제안됐다. 또한 방풍림을 조경 및 악취 관리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충남도는 스마트 축산 복합단지 실현 방안으로 당진에 있는 석문간척지 내 6만 두 규모를 우선 조성지로 제시했다. 올해 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부터 2년 동안 기반 조성 착공과 준공,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이전 농가 모집 등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석문간척지에 추가로 24만두 규모, 보령과 서천 부사간

척지에 30만 두 규모의 스마트 축산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 충남도 “내년부터 본격 사업 추진”

충남도가 발표한 30만 두 규모의 스마트 축산복합단지 조성 사업에는 165만㎡의 부지와 759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7년에는 단지 내 스마트 축사와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등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향후 충남도에서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농식품부와 간척지 활용에 대해 협의하고, 주민 설명회와 환경영향평가,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뒤에 실시설계를 수립,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략)

충남도의 계획에 따르면 당장 내년부터 석문간척지 내에 ‘스마트 축산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당진시는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2일 열린 당진시의회 제107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현안질의에서 오성환 시장은 “충남도에서 축산 단지를 어떠한 방식으로 조성하고 이를 시·군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의수 의원은 “현재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파악하면 축산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입장이 많다”며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을 감안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당진시가 충남도의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에 대한 대응 전략을 철저히 세워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하 생략)

[출처 당진시대 일부 발췌]

## “불산공장 건축 불허가 항소심 당진시 승소 환영”



램테크놀러지 석문산단 불산공장 조감도. ©당진시청 제공

당진환경운동연합이 (주)램테크놀러지 불허가 처분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당진시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환영했다.

앞서 지난해 4월 법원은 (주)램테크놀러지가 사고는 있었지만, 재발 가능성이 거의 없고 업체에서 공청회를 할 의무도 없다고 판결했고, 이에 당진시와 불산공장 반대대책 특별위원회는 즉각 항소했다.

그리고 지난 8일 법원이 (주)램테크놀러지에서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불허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해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9일 논평을 통해 “이번 항소심의 당진시 승소는 시

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환경정의에 대한 재판부의 합당하고 상식적인 판단으로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적극 환영한다”며 “램테크놀러지는 이번 판결에 즉각 승복하고 석문산단 내 입주 포기과 수요지 주변으로의 공장입지 변경을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과거에도 수차례 불산 유출사고를 일으킨 바 있는 램테크놀러지는 2020년 2월 석문산단 내 공장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이듬해 당진시는 안전성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린 바 있다”며 “램테크놀러지는 당진시를 상대로 공장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를 청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충남 금산군의 불화수소 하역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이 램테크놀러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28일 대법원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는 등 최근 피해 우려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당진환경운동연합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지역과 해당 공정에 사용되는 위험한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지역이 다르다는 것은 화학사고의 위험을 다른 지역으로 떠넘기는 대표적 환경 부정의의 사례”라며 “램테크놀러지는 항소심에 즉각 승복하고 석문산단 내 공장 입주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출처 당진신문]

# 충남환경운동연합 2024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공동대표 손창원·남현우·윤동권·차수철·황성렬, 감사 박형선



지난 2월 29일 내포혁신플랫폼에서 충남환경운동연합 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충남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월 29일 내포혁신플랫폼에서 21명의 대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정기 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 대의원대회는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서기지명, 상임대표 인사, 지역보고, 주요활동보고, 안전상정 및 회순채택, 안전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안전으로는 △전차 회의록 보고 및 채택의 건 △감사보고서 채택의 건 △2023년 사업평가(안) 승인의 건 △2023년 결산(안) 승인의 건 △2024년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2024년 예산(안) 승인의 건 △정관 개정(안) 심의 △임원 선출 등 8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제1호 의안 전차 회의록 보고 및 채택부터 제7호 의안 정관 개정(안) 심의까지의 안전은 일부 자구 수정을 포함해 원안대로 승인됐다.

정관개정(안)은 선출직 대의원의 임기를 2년

으로 규정하는 내용과 선출직 운영위원을 신설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운영위원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승인됐다.

임원 선출에서 공동대표로 충남의 각 지역조직 대표인 손창원(당진), 남현우(서산태안), 윤동권(예산홍성), 차수철(천안아산) 공동대표와 황성렬 대의원 총 5명을 공동대표로 선출했으며 감사는 예산홍성의 박형선 감사가 연임 했다.

정관개정에 따라 신설된 선출직 운영위원은 김병빈, 박기남, 배은주, 서상욱, 신은미, 유종준, 채종국 총 7명의 대의원이 운영위원으로 선출됐다.

한편 감사보고서에서 2023년 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른 장기기금 미집행을 지적하고 대의원대회 전 장기기금 적립을 진행토록 한 사항과 기후에너지특위 특별회계에서 별도 계좌를 신설해 퇴직금 적립하도록 한 사항이 지적사항으로 제시됐다.

[글 사무국]

## “석탄 발전 노동자 대량 해고 위기, 정부 정의로운 전환 대책 마련하라”

충남 47개 시민사회단체, 내달 30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충남 노동자 행진’



충남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 28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석탄 발전소 폐쇄로 관련 노동자들의 대량 실직 사태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 지역에서는 잃자리를 잃게 될 석탄 발전소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남 지역 노동자와 시민사회 단체들로 구성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충남노동자행진 추진위원회’는 28일 충남도청 프레젠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월 30일 충남 태안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충남 노동자 행진’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중략)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중략)“앞으로는 더 엄청난 기후재앙이 닥칠 것”이라며 “그런데도 자본가 정부의 대응은 너무나 한가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석탄발전소 폐쇄가 필수적이지만 그로 인해 생업을 잃게 될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전국의 석탄발전소 총 59기 중 절반에 해당하는 29기가 충남에 위치하고 있다”며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폐쇄되는 석탄발전소 28기 중 14기(태안 1~6호기, 당진 1~6호기, 보령 5,6호기)가 충남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34년까지 폐지되는 석탄발전소 30기 인원 모두가 일자리 전환이 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최대 7935명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추정된다”며 “폐쇄되는 석탄발전소가 LNG발전으로 전환되더라도 4911명이 해고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은 무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별도의 요구안을 통해서도 ‘기후재난으로부터 노동자와 농민, 시민의 일과 삶을 지키고 모두의 존엄과 안전, 생명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이하 생략).

[출처 오마이뉴스 일부 발췌]

## “한달 만에 또?” 국힘,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발의

시민단체 “학생인권으로 이익 추구, 혐오정치 중단” 촉구

충남권 101개 노동·농민·교육·환경 부문 시민단체들이 꾸린 ‘위기충남공동행동’이 지난해 충남도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처리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폐지 조례 재의안이 부결돼 기사희생한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가 또다시 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충남도의회는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재발의돼 다음달 5~19일 열리는 제350회 충남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박정식 의원(아산3)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33명과 무소속 지민규 의원(아산6) 등 34명이 공동 발의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12월15일 열린 제348회 도의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폐지안이 가결됐으나 충남교육감의 재의요구에 따라 지난 2일 제349회 임시회에서 재상정됐다. 하지만 재의 안건 가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부결됐다. 이번에 폐지조례안을 재발의한 도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책임과 의무, 교사의 권리는 없고 학생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기 어려워지는 등 교권을 추락시켰다”고 거듭 주장했다.

시민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충남권 노동·농민·



‘위기충남공동행동’이 지난해 충남도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처리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환경·교육 부문 101개 단체가 꾸린 위기충남공동행동은 성명을 내어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폐기된 지 한달도 안 된 조례안을 재발의한 것은 학생 인권을 도구로 삼아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반헌법·반인권·반민주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충남도의회와 국민의힘에 △혐오정치 중단 △학생인권조례 폐지 당론 철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즉각 폐기 및 폐지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이 단체의 임가혜 사무처장은 “국민의힘은 폐지 조례안을 재발의하면서 교권 보호 대책, 학교 구성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또다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혐오정치 퇴출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한겨레]

# 생활속 플라스틱·페트병 분리수거 방법

**생활 속 분리배출  
일상다반사**

플라스틱류 · 페트병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플라스틱 분리배출 올바른 동참으로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세요.

**투명페트병과 유색페트병을 분리해서  
지정된 배출함에 넣어주세요!**

투명페트병      유색페트병 및 플라스틱류

투명 페트병      플라스틱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

1. 반우기
2. 간헐배기
3. 최대한 직그대로고 뚜껑 닫기
4. 분리배출

**착한 습속 하나**  
투명 페트병의 라벨은 분리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한 후 배출해주세요. 못이나 가방 등 고품질 생산에 큰 도움이 됩니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도란?**

음료와 생수 용기에 쓰는 무색투명한 페트병은 고품질 재활용용에 사용되는데요, 이를 별도 분리수거함에 넣는 제도가 바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도입니다. 2021년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을 포함한 전국 모든 주택에서는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무색페트병      전용수거함

**플라스틱 분리배출 요령**

- 1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다른재질은 바로 제거합니다.
  - 용접봉기 - 끈짜지 제거
  - 열티슈 - 잘 분리
- 뚜껑이 용기 안에 대해서는 제거합니다! 내용물을 비우고 용기 헹구주세요! (물 거저기는 필수!)
- 생필품 용기를 따로 헹구기 어렵다면 내용물도라도 비워주세요!

플라스틱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종류가 다양합니다. 원칙적으로 종류별(PE, PP, PS 등)로 분리해서 배출해야 재활용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 확실히 알아볼까요?



환경부



한국환경재단

## 폴리염화비닐(PVC)

비교적 단단하며, 전기절연성이 좋음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경량성, 투명성, 위생성이 뛰어나



## 폴리프로필렌(PP)

내약품성, 내마모성, 내충격성, 경량성이 우수함



## 폴리스티렌(PS)

투명하고 형상을 만들기 쉬움, 열과 충격에 약함



미래 플라스틱 특징과 일상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플라스틱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 폴리에틸렌(PE)

가벼우며, 충격에 강함, 전기절연성과 내유성이 높음



\* PE는 밀도에 따라 고밀도 HDPE와 저밀도 LDPE로 분류

먼저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 종류를 알아볼까요? 우리가 많이 쓰는 플라스틱은 화학적 구조, 압축 성질, 사용 범위에 따라 나뉘죠!

## 플라스틱 분리배출 표시마크



30년차 주부인 저에게는 페트병과 플라스틱 분리배출은 까다로운 일이죠. 종류도 많고 상징도 다양하다보니 40이면 분리배출이 어렵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 제대로 지켜야 하지 않겠어요?



## 생활 속 분리배출 일상다반사

플라스틱류 · 페트병만

## 공동대표 노진철·강찬수·차수철, 사무총장 신우용

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개최, 임원 선출



왼쪽부터 노진철 상임대표, 강찬수·차수철 공동대표, 신우용 사무총장

환경운동연합 차기 공동대표로 노진철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강찬수 환경신데믹연구소 소장, 차수철 광덕산환경교육센터 대표 3명이, 사무총장으로 신우용 서울환경운동연합 상임이사가 선출됐다.

환경운동연합은 2월 24일 서울 종로구 한국걸스카우트연맹 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앞으로 3년간 환경운동연합을 이끌 14기 임원을 선출하고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을 의결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상임대표로 선출된 노진철 공동대표는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공동대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공동대표, 한국환경사회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대표 환경사회학자다.

강찬수 공동대표는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 한국환경기자클럽 회장을 지냈고, 한국외대 기후변화융합학부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차수철 공동대표는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초

대 사무국장에 이어 광덕산환경교육센터를 건립,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공동대표를 역임한 시민환경교육 분야 전문가다.

사무총장에는 신우용 서울환경운동연합 상임이사가 선출됐으며, 감사는 이상근 공인회계사와 이태일 에코피스아시아 사무처장이 선출됐다.

환경운동연합 임원추천위원회는 이날 공동대표로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서 “공동대표로서 갖추어야 할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우선 기준으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출된 임원들은 환경운동연합이 사단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상임대표가 이사장을, 나머지 공동대표와 사무총장이 이사를 맡아 앞으로 3년동안 환경운동연합을 이끌게 됐다.

[글 사무국]

## 오염수 4차 방류, 첫 사이클 완료 앞뒀지만... 방사능 액체 누출 등 안전성 도마

오염수 4차 방류, 다음달 중순까지 7800톤 처리  
 지난해 8월 이후 1~4차 방류, 첫 사이클 완료...3만1200톤 방류  
 원전 내부서 오염수 누출 사고 등 안전관리 미흡 지적

다음달 중순까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4차 방류가 이뤄질 경우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해양 방류 첫 사이클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오염수 해양 방류 과정에서 치명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원전 내부에서 오염수 누출 사고 등이 이어지면서 안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쿄전력은 2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4차 방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4차 방류 대상 오염수 용량은 총 7800t(톤)이다. 앞서 지난해 8월 24일부터 오염수는 세 차례에 걸쳐 각각 비슷한 양이 바다로 흘러갔다.(중략)

4차까지 방류가 이어지는 동안 해양으로 대량 방사능이 누출되거나 다핵종저거설비(ALPS) 고장 등 치명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원전 내부에서 오염수 원액이 누출되거나 배관 청소 도중 오염수가 섞인 세정액이 분출되는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일 원전 오염수 정화 장치에서

오염수 1.5톤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전 내부 4호기의 고온소각로 건물 동쪽 벽면 배기구에서 알프스 정화 전 오염수가 누출되며 논란이 됐다. (중략)

지난해 10월에는 알프스 배관 청소 도중 세정제와 오염수가 섞인 방사성 액체가 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배관을 청소하던 작업원 5명은 탱크에 흘러보내는 호스가 빠지면서 방사성 물질 포함 액체를 뒤집어썼다.(중략) 이 때문에 일본 내부에서도 안전관리가 미흡했다며 도쿄전력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와중에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다음달 12~14일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중략) 앞서 태평양 인접국가들과 환경단체의 질의에도 불구하고 그로시 사무총장은 '해양방류의 정당성 원칙' 등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번 방일 또한 '보여주기' 일정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하 생략)

[출처 노컷뉴스]

# 기후공약 준비됐나요? 시민 60% “내 표심에 영향”

‘기후정치바람’, 유권자 1만7천명 조사  
사회적 위기…인구 다음으로 기후 꼽아  
“재생에너지 늘리자” 원전의 2.5배



그래픽\_〈한겨레〉, 자료\_기후정치바람

국민 3명 중 2명이 ‘기후위기 대응 비용 마련을 위해 공공요금이나 공과금에 탄소배출량 비용을 부과하자’는 제안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적정 자동차 대수를 정해 차량 등록을 제한하자’는 데에도 5명 중 3명이 동의했다. 날이 심화되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고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의견이 광범위하게 나타난 것이다. 특히 응답자 5명 중 3명은 ‘마음에 드는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내놓은 후보가 있다면 평소 정치적 견해가 달라도 투표를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로컬에너지랩과 더가능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등이 참여한 ‘기후정치바람’은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4 기후총선 집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후위기 아젠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1천명씩, 모두 1만7천명을 대상으로 172개

문항을 묻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들은 ‘인구위기’(58.3%)에 이어 ‘기후위기’(20.0%)가 앞으로 다가올 사회적 도전 과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이라고 꼽았다. 기후변화의 원인에 대해선 10명 중 9명(92.9%)이 ‘자연변화’가 아닌 ‘인간활동’의 영향이라고 답했다.

절반 가량의 응답자(48.8%)는 ‘탄소중립 정책이 지역산업에 단기적으로는 나쁘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탄소 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 대응 비용 마련을 위해 공공요금이나 공과금에 탄소배출량에 따른 비용을 부과하자는 의견에 65.5%가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기후위기 대응 재원으로는 ‘탄소세 신설’(37.8%)과 ‘부유세 신설’(29.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아울러 전력생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 방안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59.1%)를 가장 많이 꼽혔으며, ‘원자력 발전 확대’는 23.7%에 그쳤다. 또 차량 등록 제한(56.6%)이나 신규 내연차 판매중단(63.8%)도 절반 넘는 이들이 찬성했다.

응답자 3명 중 2명 정도(62.3%)는 오는 4월 총선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강조하는 후보에게 더 관심을 둘 것’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기후대응 공약이 마음에 든다면 평소 정치적 견해가 다른 정당이거나 후보라도 투표를 고려하겠다는 의견이 각각 60.5%, 62.5%로 높게 나타났다.

기후정치바람은 이번 조사에서 기후정보 인지도와 기후위기 민감도, 기후 투표 성향을 평가해 ‘기후유권자’를 가려냈는데, 그 비율이 33.5%로 높게 나타났다. 통념과는 달리 성별로는 남성(35.7%), 연령별로는 60살 이상(35.2%)의 비중

이 큰 것이 눈에 띈다. 전 연령층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기후위기 민감도에서 1~3%포인트가량 높게 나타났지만, 기후정보 인지에서 남성에 견줘 10%포인트 정도 낮았기 때문이며, 연령이 높아진다는 것이 기후 민감도를 떨어뜨리는 효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17개 광역 시도 별로는 전남, 서울, 대전, 광주 등의 순으로 기후유권자 비중이 높았으며, 충북의 비중이 가장 낮았다. 기후정보 인지에선 서울 유권자가 가장 높았으나, 기후위기 민감도에선 전남이 1위를 차지하며 전남의 기후유권자 비중이 커진 것이다.

서북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지금까지 기후정치를 위한 노력이 선거 때 공약 채택 등을 목표로 한 ‘상층 로비’였다면 이 프로젝트는 직접 유권자를 만나지는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무상급식이 한때 선거의 주요 의제가 된 것은 그 의제를 들고 골목을 돌며 싸웠던 시민들 덕이며, 기후 이슈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다.(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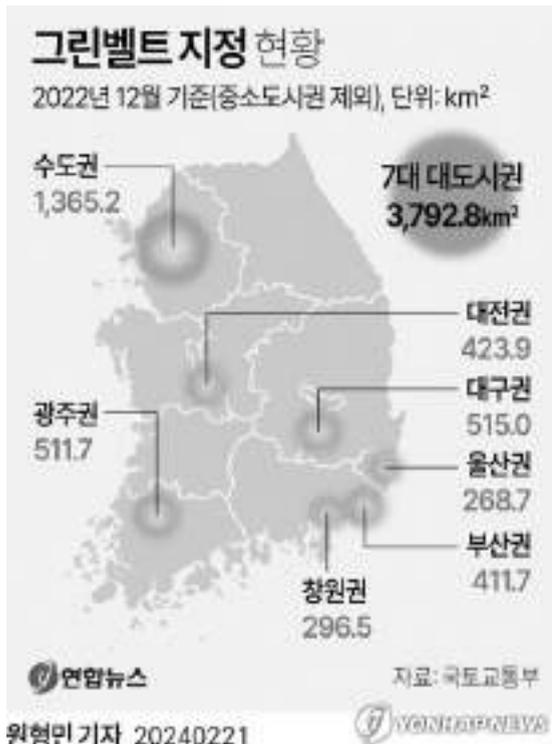
기후정치바람은 오는 2월 종합보고서 발간 및 2차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앞으로 2027년 대선까지 해마다 비슷한 조사와 기후유권자 발굴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중략)

한편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 패널들에게 설문 링크를 보내는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0.8%포인트에 95% 신뢰수준으로,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 인구통계에 따라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출처 한겨레 일부 발췌]

## 수도권 그린벨트 대대적 해제... 선거전략 논란

총선 50일 전 지역표심 자극할 수 있는 정책 발표  
 그린벨트 면적 영남 압도적...수혜 편중 가능성  
 '국토 30% 보호구역화' 생물다양성협약과도 상충



원형민 기자 20240221

출처\_연합뉴스, 자료\_국토교통부

21일 발표된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대규모 해제 정책은 발표 시점이나 내용, 다른 정부 정책과의 충돌 가능성 등이 지적된다. 두 달 앞으로 닥친 총선을 노린 지역표심 획득 전략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가 발표한 그린벨트 규제완화 정책의 골자는 비수도권 지방에 대해 △지역전략사업의

총량규제 예외,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권한 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책이 발표된 것은 이날은 총선 50일 전이다. 비수도권 지자체의 숙원이던 그린벨트 해제의 길을 열어주면서 집권세력이 지역표심을 얻을 기회가 생긴다. 물론 정부는 총선과 무관한 정책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중략)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위원은 “이미 비수도권 지역은 그린벨트 해제 물량의 절반 가까이 소진하지 못하고 있고, 해제도 이미 많이 이뤄져 있는 터라 사실상 개발불능지가 많다”며 “그럼에도 그린벨트 해제를 거듭 추진하는 것은 지역 표심을 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번 그린벨트 규제완화가 다른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우리나라도 비준한 유엔 생물다양성협약은 2030년까지 각국이 국토의 30%를 보호구역화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해말 정부는 이에 기초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발표하고, 도시 주변 그린벨트 핵심생태축 보전·복원 추진을 선언했다. 이번 그린벨트 정책과는 상충된다. (중략) 그린벨트는 현재 3793km<sup>2</sup>로 국토면적의 3.8% 수준이다.

[출처 노컷뉴스 일부 발췌]

(사)당진환경운동연합  
2024년 2월 일반회계 수입 지출 결산 보고

(단위: 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액	항	목	금액
이월금	전월 이월금	27,758,689	인건비	급여	5,825,000
회 비	개인회비	4,940,000		퇴직적립금	420,700
	법인회비	120,000		사회보험료	504,900
	계	5,060,000		계	6,750,600
일반후원금	개인후원	18,000	경상비	업무추진비	26,000
	법인후원	-		세금과공과금	184,660
	계	18,000		소모품비	-
사업후원금	사업후원금	-		지급수수료	309,950
	계	-		기타운영비	165,900
단체지원금	단체지원금	-		계	686,510
	계	-	사업비	기후에너지사업	84,200
보조금	기타사업	-		생태보전사업	-
	계	-		생활환경사업	-
지원금수입	지원금수입	-		조직 회원사업	2,237,900
	계	-		홍보사업	537,080
기타수입	기타수입	-		모금사업	-
	계	-		연대사업	654,503
전입금	전입금	-		기타사업	30,000
	계	-		계	3,543,683
차입금	차입금	-		자산취득 및 부채상환비	자산취득 및 부채상환
	계	-	계		-
			이월액	이월액	-
				계	21,855,896
월수입 총계		5,078,000	월지출 총계		10,980,793
수입 합계		32,836,689	지출 합계		10,980,793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1인시위 진행

2월 한달간 매주 금요일 1시간씩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1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 2023년 회계 감사

2월 2일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당진환경운동연합 2023년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



## 2월 운영위원회 회의

2월 7일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2월 운영위원회를 열었습니다.

###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전체회의

2월 16일 내포혁신플랫폼에서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전체회의를 진행했습니다.



### 정의로운전환 충남노동자 행진 요구안 토론회

2월 21일 충남노동권익센터에서 정의로운전환 충남노동자행진 요구안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 탈석탄 글로벌 전세계 동 시 행동 캠페인 진행

2월 29일 당진화력앞에서 보험사들의 기후정책 도입 압박하는 탈석탄 글로벌 전세계 동시 행동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 01 일반사업

- ❖ 3/05 지구의날 기념 탄소중립실천대회 준비회의 - 당진2동사무소  
남부사회복지관 '지구방위대'사업 준비회의 - 미정
- ❖ 3/06 충남 기후총선 네트워크 회의 - 온라인  
3월 정기 운영위원회 회의 - 사무실
- ❖ 3/07 탈석탄운동 방향 모색 워크숍 - 서울역 인근 회의실  
에코생협 당진점 생활재위원회 회의 - 에코생협 당진점
- ❖ 3/08 남부노인복지관 환경사업 업무협약식 - 남부노인복지관
- ❖ 3/11 2024 기후위기 당사자 사회적대화 - 서산태안환경교육센터
- ❖ 3/12 충남시민사회연대회의 총회 - 내포혁신플랫폼
- ❖ 3/13 화석연료(가스) 대응 관련 인터뷰 - 온라인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대응 세미나 - 서울역 인근 회의실  
지속가능상생재단 공모사업 설명회 - 송산면주민자치센터
- ❖ 3/14 산업폐기물 처리 공공성 확보 요구 집중행동 - 서울 SK본사 및 여의도
- ❖ 3/15 생물다양성 모니터링사업 네트워크 회의 - 사무실
- ❖ 3/16 후쿠시마 핵사고 13주년 에너지전환대회 - 서울 을지로입구역
- ❖ 3/17 정의로운전환 충남노동자행진 추진위 회의 - 온라인
- ❖ 3/18 총선 기후유권자 캠페인 - 구터미널 로터리
- ❖ 3/19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대응 폐기물분야 세미나 - 온라인
- ❖ 3/20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대응 건물분야 세미나 - 온라인  
충남환경연합 기후에너지특위 회의 - 미정
- ❖ 3/21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대응 수송분야 세미나 - 온라인
- ❖ 3/22 물의 날 기념 행사 - 보덕사 앞
- ❖ 3/25 총선 기후유권자 캠페인 - 구터미널 로터리  
녹색철강네트워크 회의 - 온라인
- ❖ 3/26 현대제철 주주총회 LNG발전소 반대 기자회견 - 인천 하버파크호텔
- ❖ 3/27 공동의장단 회의 - 사무실  
당진시 담수호 수질개선 협의회 회의 - 당진시청
- ❖ 3/30 정의로운 전환 충남노동자행진 - 태안터미널 앞

## 02 회의 및 기타일정

- ❖ 사무국 회의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 ❖ 회원소모임 난리부르스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 최현준실용음악학원
- ❖ 소식지 편집위원회 - 3월 27일(수) 11시30분
- ❖ 핵오염수 해양투기 대응 1인 시위 - 구터 로터리 매주 오전11시

## 03 지역현안

- ❖ 석문산단 불산공장 입주
- ❖ 석문산단 LNG기지 건설
- ❖ 현대제철 자가 LNG발전소 건설
- ❖ 당진화력-신송산 간 345kV 송전선로
- ❖ 북당진-신탕정 간 345kV 송전선로

이달회비 납부 회원

가봉현 강남기 강남호 강도연 강병수 강신영 강은구 고낙현 고락일 고재만 고중민 곽성심  
 광영복 구경숙 구경완 구미선 구분갑 구분재 구분찬 구분평 구분현 구승남 권석원 권영석  
 권오화 권중원 길호종 김경희 김경희 김광수 김광운 김광태 김기동 김기재 김길자 김남조  
 김남철 김남철 김대원 김동길 김동진 김동환 김두현 김명구 김명선 김명용 김명호 김미경  
 김미성 김민경 김민호 김병구 김병빈 김보담 김본겸 김봉균 김봉운 김봉일 김석래 김선규  
 김성훈 김수정 김수진 김수창 김수한 김순동 김승수 김신순 김양중 김영민 김영자 김예나  
 김용준 김윤택 김은주 김은주 김은호 김응열 김응영 김일권 김재성 김재진 김정곤 김정숙  
 김정순 김정진 김종균 김종래 김종범 김주석 김진 김진남 김진용 김철환 김춘이 김필배  
 김하정 김향곤 김현기 김현립 김형기 김형모 김혜선 김혜숙 김호인 김홍희 김홍환 남청현  
 노정길 노정민 노창엽 류제민 맹봉재 맹정재 명형남 문상수 문영미 문영수 문은호 문창모  
 박경미 박경서 박경언 박경일 박근성 박기남 박기행 박미상 박미현 박보균 박상길 박성규  
 박성민 박세진 박순례 박신규 박연신 박영일 박용상 박윤숙 박은정 박은희 박이리사 박종대  
 박종화 박창순 박춘희 박해규 박현순 박호완 박희선 박희복 박희정 방승미 방우진 배국희  
 백윤경 백종렬 서동우 서영순 서지현 성낙석 소병희 손강열 손민우 손영기 손영미 손종선  
 손지예 손창원 송노섭 송병언 송수연 송연섭 송영주 송운호 송재한 송창병 송하종 송한결  
 신경상 신미희 신양웅 신진호 신철석 신현기 신현덕 신현하 심주현 심중섭 안길훈 안동일  
 안병호 안승환 안영순 안영훈 안효권 안효신 양근호 양영진 오동원 오복환 오의환 오현동  
 오훈순 우동기 유경자 유영석 유종준 유현경 유형민 육이창 윤기섭 윤도현 윤범용 윤은경  
 윤인현 윤재무 윤주홍 윤혜신 이강선 이경미 이경용 이광선 이규달 이규철 이근주 이기중  
 이능용 이대우 이동준 이동현 이두용 이명자 이미영 이범주 이병구 이병도 이병천 이보은  
 이상문 이상용 이상우 이상일 이상현 이새봄 이석규 이순영 이영길 이영수 이영우 이용석  
 이원석 이 월 이은화 이인범 이인수 이일순 이장희 이재상 이재성 이재훈 이정환 이종필  
 이종학 이준성 이중호 이증영 이창규 이철재 이충휘 이해선 이해운 이현숙 이해슬 이호경  
 이 훈 이홍숙 인광교 인만교 인현옥 인호환 임관택 임광빈 임미숙 임수진 임아연 임종광  
 임종석 장규진 장덕기 장미경 전경배 전종숙 전향숙 정경채 정광영 정낙구 정덕영 정병준  
 정분환 정봉식 정선희 정세훈 정영표 정윤진 정종한 정중섭 정치웅 정희구 조강호 조민형  
 조상연 조성대 조성준 조성환 조수용 조순형 조용재 조한영 조희두 주영권 지광선 차기능  
 채종국 천선희 천혜경 최강부 최도현 최병수 최석현 최성기 최성욱 최세호 최수빈 최오상  
 최완택 최은진 최인호 최장열 최재혁 최종길 최종원 최지웅 최창용 최효진 팽말숙 하용봉  
 하용자 하정미 하정이 한광현 한기홍 한문기 한미경 한상태 한성현 한수미 한수석 한원희  
 한정수 함효진 허인욱 현민 호상기 홍기석 홍두표 홍심선 황성렬 황푸름 (주)다울건설산업  
 (주)디에스(김현기) 글로벌천막 당진시대 당진여객(주) 대성종합공구 별나라어린이집 상록인쇄사  
 생고뱅이소바코리아(주) 세실리아요양센터 영축농장 율곡어린이집 정우건설(주) 해송

※ 3월 5일까지 입금기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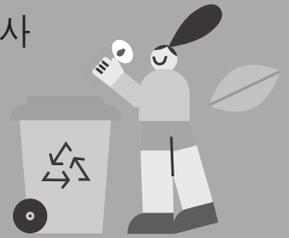
지구의 날 기념 탄소중립 실천대회  
**지구를 생각하며 벚꽃길도 걷고,  
 탄소중립 실천 함께해요!**



- 일시: 2024년 4월 13일(토) 오전 6시30분 ~ 11시
- 장소: 어름수변공원

프로그램 : 벚꽃길 걷기(경품권 배부), 당진시 탄소중립 실천행사, 경품 추천  
 체험부스 운영 : 친환경 농수산물 판매, 폐건전지·우유팩 교환 행사  
 아나바다장터, 다양한 체험부스 운영

★ 텀블러를 가져오시면 커피를 무료로 드립니다.



## 후쿠시마 핵사고 13주년 에너지 전환대회

2024년 3월 16일(토) 당진출발시간 10시30분/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실  
 참가신청: 041-355-76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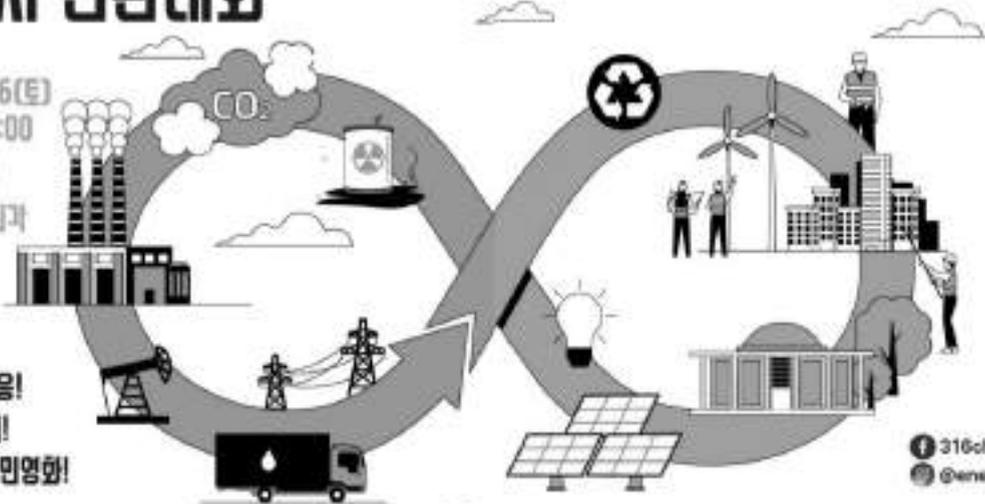
### 후쿠시마 핵 사고 13주년 에너지 전환대회

- 추진위원이 되어주세요! [bit.ly/change\\_316](https://bit.ly/change_316)
- 신청곡/사연을 보내주세요! [bit.ly/316대회사연모집](https://bit.ly/316대회사연모집)

2024. 3. 16(토)  
 14:00-17:00

울지로입구역  
 3번출구-보신가

바뀌 정치!  
 잘해 기후대응!  
 안돼 핵발전!  
 멈춰 에너지민영화!



316change  
 @energy\_climate

※이 소식지는 상록인쇄사의 도움을 받아 발행되었습니다.